

교회소식

오늘 오후 청파성서학당 이후에 동회회가 있습니다.

교육부 회의가 오늘 오후 12:30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중구용산지방 여선교회 계삭회가 12일(화) 10시 청파교회에서 있습니다. 여선교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오전 10:10 '모래야 놀자' 체험전에 다녀옵니다. 교회에 12:40 도착합니다.

16일-17일 유치부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16일(토) 오전 10시에 별내 블루베리 팜스쿨에 다녀옵니다.

속회는 이번 주부터 방학에 들어갑니다.

생명 살림과 전기 절약을 위해 과도한 에어컨 사용을 줄이고 선풍기를 이용합니다.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는 25-28도)

오바다 1:10-14

오늘 식당 봉사 : 안홍숙 이증자 이수정 노성희 이혜경 강신철 홍순구 최재욱
다음 주 식당봉사 : 이소애 오미숙 이영란 이소혜 박유경 변재민 강세기 김성우
오늘설거지봉사 : 7여선교회 (40세 이하)

다음주설거지봉사 : 청년부

커피 판매 봉사 : 4남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의
주님의
오
묘으로
상소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강림 후 제 8주】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주님 나라는(×3)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8. 복의 근원 강림하사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계속되는 장마와 폭염 속에서 쉽게 지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굶은 날씨에도 논밭에 나가 부지런히 생명을 살피는 농부처럼, 우리들도 주어진 일상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대하는 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전쟁과 테러로 신음하는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이은 테러로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희생된 이라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자기들의 이기적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무고한 이들의 생명을 빼앗는 무리들을 벌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땅에 평화를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호12:5,6 인도자

♣ 교 독 문 53. 시편 121편 다 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함께

2부대표기도 임주빈 권사

2부응답송 찬양대

2부찬양 390. 예수가 거느리시니 다 함께

♣ 성경봉독 창 15:1-7 I. 인도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II. 허신열 집사
..... 봉독자

찬양 주님의 선한 권능에 감싸여 I. 하모니동호회

말씀 주님께 감사하라 II. 찬양대

..... 하늘을 쳐다보아라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인식	김정숙	고숙이	곽정자	국지연	김광일	이부용	김남종	오복순	김성순
김영순	김용태	박정숙	김윤수	박상호	김재흥	최희영	김정길	최숙화	김해영 ^a
남명진	김애정	마재국	김손나	문복순	민지회	박다엘	김박상	신연화	박숙미
박시내	박재영	이현정	백묘현	서정순	안정숙	안현숙	오슬기	왕수명	왕일웅
최현선	윤영미	은종인	이광용	이근식	신영신	이동천	이우상	이계월	이인웅
오승경	이한림	김영희	임고운	오재형	임선양	신현숙	임영진	정경례	장미경
장영숙	정두리	정아름	정종삼	정진호	양순임	조병무	송양진	조지연	최원남
김희천	최윤선	하현철	최성애	한상경	허호범	박성실	현진	황현성	이오

감사헌금

강금분	강인식	김정숙	김금순	김용진	박호선	김재흥	최희영	김정근	김해선
김혜라	김화선	문복순	박창운	허정운	유동호	은종인	이광재	이부용	이왕준
송상경	이유일	김미희	이재문	임광호	임설희	최미선	허명선	홍성식	이유리

무명20

녹색꿈헌금

김영호 김향자 무명4

생일감사헌금

구명자 이왕준 송상경 이승주

속명	인도자	모일 곳	속명	인도자	모일 곳
예루살렘	박성희	방학	청파1속	김재흥	교회
안디옥	최경미		청파2속	송형운	
가나안	장영숙		청파3속	하현철	
베다니	박홍재		청파4속	김정민	
시온	권미숙		청파5속	장영숙	
에베소	백혜숙		청파6속	신진식	
빌립보	곽권희		청파7속	김재환	
가버나움	안홍숙		청파8속	이범석	
나사렛	김경혜		청파9속	김인걸	
			청파10속	장영숙	

내려놓는다

역도 선수는 든다
 비장하고 괴로운 얼굴로
 숨을 끊고,
 일단은 들어야 하지만
 붙끈, 들어올린 다음 부들부들
 부동자세로 버티는 건
 선수에게도 힘든 일이지만, 희한하게
 힘이 남아돌아도 절대로 더 버티는 법이 없다
 모든 역도 선수들은 현명하다
 내려놓는다
 제 몸의 몇 배나 되는 무게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텅!
 그것 참, 후련하게 잘 내려놓는다
 저렇게 환한 얼굴로

- 이영광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신진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장로 : 한완식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강석남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김진동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2부찬 양	청파7속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안으로 수그러든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믿음의 발걸음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함께:	아멘. 눈앞의 것들에만 골똥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약속의 징표들을 하나하나 헤아리며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담임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성서학당 / 강의 : 김기석 목사 동호회 / 각 동호회별	낮 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목사 2부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안홍숙 권사	인도자 이은정 집사

7월	1부 영접위원	이부용 박숙미			
	1부 헌금위원	하현철			
	2부 영접위원	김인걸	윤성종	박기영	주은경 김윤정 김경혜 홍춘숙
	2부 헌금위원	한완식 정경례			

믿음으로 읽는 글

‘냉수’ 신앙

김교신은 정릉으로 이사를 간 뒤에 집 마당에 우물을 팠다. 1936년 5월의 일이다. 도심 외곽으로 벗어난 집터라 작은 밭이 생겨 고구마도 심고 감자도 심고, 비록 경험 많은 농사꾼은 아니었지만 흙과 친한 삶을 시작했다. 집 가까이 흐르는 개천물이 맑고 시원해서 한 동안은 개천물을 떠다 먹었다는 데, 날이 점점 더워지자 그도 어렵게 되었던다. 목욕꾼들이 늘어 물이 식수로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식수로 사용할 양으로 판 펌프 우물이었다. ...

김교신의 정릉 집 앞마당 펌프 우물물은 일가족의 일상을 위해 꼭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어느덧 집안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귀택하여 펌프물을 시원히 뽑아내어 발 씻고 목 씻고 세수하고 양치하여 시내에서 묻어 온 진애를 하나 없이 떼어버리고 냉수 한 사발을 들이마시니 살 것 같다. 시내에서 돌아와서 몸을 씻고 냉수 마시는 재미는 각별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물 하나 파는 것이 자자손손에게 큰 유산이 된다고 하였거니와(야곱의 우물 등) 우리 집의 제일 큰 보물은 실상 이 펌프 우물이다. ...

무엇보다 그의 신앙은 냉철하고 이성적이며 성서본문을 깊이 연구하여 그 안에 담긴 핵심 메시지를 끌어올리려는 ‘냉수’신앙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그의 이성적이고 학문적인 성서 연구야 정릉에서 우물을 파기 이전부터 있던 것이다. 성서 텍스트를 정독하며 메시지의 정수를 읽어내던 유학자적 기독교인의 실천이 남달랐던 그였다. 정릉으로 이사가던 같은 해 2월에 쓴 글 ‘금후의 조선 기독교’에서도 이미 조선 기독교의 신앙 행태를 걱정하며 “식염주사 같은 부흥회로써 열을 구하지 말고 냉수를 끼쳐서 열을 식히면서 학도적 양심을 배양하며, 학문적 근거 위에 신앙을 재건할 시대”임을 밝힌 바 있다.

지나간 50년간의 조선 기독교가 대체로 ‘성신 타입’ 이었다면 금후의 그것은 ‘학구 타입’ 이 되기를 우리는 기대한다. 그러나 전자가 은혜로 되었던 것처럼 후자도 은혜로 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학문과 신앙이 완전히 합금을 이룬 것이라야 금후에 닥쳐오는 순교의 세대에 능히 견디어 설 것이다.

그러나 어찌랴. 아직까지도 한국교회의 주류 신앙은 ‘냉수’는커녕 펄펄 끓는 온수인 듯하다. 그 뜨거움의 진원지가 ‘그리스도’라면야 굳이 판지를 걸 일도 걱정할 일도 아니다. 성령의 활동이야 뜨겁든 차갑든 어차피 한 방향, ‘살리는 영성’으로 나타날 터이니 말이다. 그러나 가까이서 지켜보건대, 오늘날 한국교회 주류의 ‘뜨거움’은 지열에 의한 온천수라기보다는 교회강단의 설교, 치유집회 등의 특별한 테크닉과 분위기에 의한 일시적인 온도 상승이기에 더욱 문제다. 빠르면 그 열이 교회 주차장에서부터 식는다. 수천 명이 한데 모인 예배당 안에서는 언제 보았다고 옆의 신도들에게 형제님, 자매님 웃는 얼굴로 축복송을 부르며 뜨겁다가, 예배가 끝나고 같은 시간 한 번에 빠져나가느라 영킨 지하 주차장에서는 차문을 내리고 샷대질을 하고 언성을 높이는 모습을 종종 본다. 그때 ‘성도’ 간에 부는 찬바람은 김교신 집 앞마당 냉수보다도 차갑지 않다.

이성을 영똥한 데 사용한 결과다. 예배시간 동안 잠시 접어 두거나 어딘가에 ‘맡겨’ 둔 채 감성 충만하게 뜨거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다시 ‘이성’을 장착한다. 그때 작동하는 이성은 오로지 세상적인 탐욕과 이를 얻기 위한 계산적 사고에만 몰두한다. 그러나 김교신이 차가운 이성으로 수행하는 ‘냉수’ 신앙을 가지라 했던 것은 가슴에 그리스도 없이 지내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이성을 놓은 신앙’은 아주 자주,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불과 성령의 불을 구별하기 어렵게 만든다. 가스불 위에서는 팔팔 끓다가 내려놓는 순간 식어버리는 냄비처럼, 교회 예배시간에만 뜨거운 신앙이 어찌 제대로 된 불의 진원지를 제 가슴에 담은 신앙일까.

- 백소영, 「버리지 마라 생명이다」 (꽃자리) 중에서